

# 하반기 경제전망과 주류산업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목 차 ■

1. 일단 악재로 경제위기감 고조
2. 하반기 5%대 성장 어려울 듯
3. 수출 안정적 증가 예상
4. IT 비롯 주력업종이 실물경제 주도
5. 본격적 내수회복은 미지수
6. 물가 금리 점진적 상승 가능성
7. 주류산업 구조조정 강화해야

## 1. 일단 악재로 경제위기감 고조

올 들어 우리경제는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경제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갈수록 냉각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쇼크 유가급등, 미국 금리 인상설 등 해외 악재가 잇달아 터지면서 경제성장의 유일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금년 2분기를 기점으로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국면을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적정수준을 크게 넘어선 가계부채 부담에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득정체, 신용불량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기간에 소비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업들의 투자 역시 기업규제와 노동불안 등 기존의 걸림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핵사태와 정치권의 변화 등 경제외적인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투자마인드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기업들의 사내유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충분한 투자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불안 등 투자환경

---

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다. 아직 중국 긴축정책의 영향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로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쇼크이후 우리경제는 증시폭락을 비롯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여전히 그 휴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뒤이어 국제유가 급등과 미국의 금리 인상설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에 또 한차례 충격을 주었다. 고유가는 필요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경제에 직격탄이나 다름없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를 웃도는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는 당장 물가불안과 생산원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간 미국의 금리인상 역시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미국 경기가 한풀 꺾이게 되면 유일한 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증가세가 그만큼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잇단 해외 악재로 수출마저 위협받게 되자 경제위기논쟁이 재연되기도 했다. 비관론자들은 현재의 우리경제는 사실상 위기상황이며, 비록 당장 위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머지않아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우리경제가 지난해 3.1%성장에서 금년에는 5%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수출호조로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위기론을 반박하고 있다. 물론 거시지표상으로 볼 때 우리경제가 위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내부를 들여다보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극심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내수부문 중에서 비교적 호조를 보여온 건설경기마저 급격히 냉각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2. 하반기 5%대 성장 어려울 듯

당초 우리경제는 하반기 이후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있다. 그동안 경기를 뒷받침해왔던 수출마저 하반기 이후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민간소비와 투자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건설경기마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민간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장을 하향 조정해 나르고 있다. 이현재 부총리는 지난 5월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민간소비와 투자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당분간 내수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인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내놓은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상승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당초전망을 수정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수출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고 물가상승 압력은 커질 것이라며 극심한 침체상태인 내수도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최악의 진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오는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올해 경제전망치를 공식 수정할 방침이다.

민간연구소들도 일제히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수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연구

소들은 경기상황이 'L자형 장기불황'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장률 5.4%에 못미치는 5%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우 경제성장률을 당초 상반기 4.9%, 하반기 5.0%로 전망했으나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기관들에 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더 비관적이다. 대부분의 최고경영자들은 하반기 우리경제는 3%안팎의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유가와 중국경기 위축이

〈표 1〉 2004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구 분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예)	3.1	5.3	6.1	5.8	4.8	5.5
총소비	-0.5	0.6	2.6	3.8	5.8	3.2
민간소비	-1.4	0.1	2.5	4.0	6.4	3.3
총고정투자	3.6	-0.3	4.1	5.3	5.5	3.9
설비투자	-1.5	-1.0	8.8	12.0	13.9	8.5
건설투자	7.6	0.1	1.3	1.5	1.1	1.1
총수출(물량)	15.7	23.7	18.8	16.4	9.3	16.6
상품수출	18.7	27.3	21.4	18.6	11.7	19.2
총수입(물량)	9.7	12.6	15.2	16.1	14.2	14.5
상품수입	10.8	14.3	16.7	17.7	15.8	16.1
경상수지(억달러)	123	73	42	31	20	166
상품수지	222	87	82	67	53	289
수출(금액)	1,976	605	608	615	661	2,489
(증가율)	(20.9)	(36.0)	(30.6)	(25.3)	(14.9)	(25.9)
수입(금액)	1,755	518	526	548	608	2,200
(증가율)	(18.1)	(19.7)	(29.0)	(29.7)	(23.6)	(25.4)
소비자물가(%)	3.6	3.3	3.3	3.3	2.7	3.1
실업률(%)	3.4	3.8	3.2	3.0	3.1	3.3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데다 특히 고유가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4분기에 경기가 상당정도 위축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4분기에 우리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물경기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부문의 경우 한계에 이른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사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만도 10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경제도 곳곳에서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은 기업이 지난해 40%에 이르고 있다. 내수부진을 반영해 갈수록 창업은 줄어들고 부도율은 급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 동안 전국 8대도시에서 새로 생긴 법인 수는 2318개로 전월에 비해 10.9%감소한 반면 부도업체 수는 374개로 5.3% 증가했다. 어음부도율도 4월중 0.06%에서 5월에는 0.10%로 크게 높아졌다.

장기불황 우려가 나올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문제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중이지만 주로 서민생활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얼어붙는 민간소비와 투자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나 통화량 증가 등에 의한 경기부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금수요가 사라진 데다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화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경기부양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세율인하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비중이 높지 않는 데다 현실적으로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제에 손을 대기 어려운 실정이다.

### 3. 수출 안정적 증가 예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일한 성장엔진인 수출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하반기들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상반기 중 35%에 달하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며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출은 하반기이후 신장률이 20%선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수출증가율에 대한 기술적인 반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들어 주력 시장인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OECD의 경기선행지수도 최근 하락세로 반전되어 수출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가 건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하반기에도 수출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관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낮아질 전망이다. 올 상반기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4.6%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4.1% 수준으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4.4%성장을 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 전체로는 작년 말까지 OECD 경기선행지수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세계경제는 올상반기에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 2개월 연속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데다 지난해 이후 원유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라 수급상황이 다소 호전되고 금리상승에 따른 투기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유가의 경우 테러사태 등으로 인한 정정 불안이 없는 한 서부텍사스 중질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를 넘는 초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지만 평균적으로 작년의 배럴당 31달러보다 2-5달러 정도 높은 수준의 고유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금년 초반과 같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세계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모순된 현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반기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의 강세로 인한 물가상승과 국제금리 상승세로 세계경제 성장세도 다소 둔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경제는 개인소비의 활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경기확장 국면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생산 증가세는 2000년의 정점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당분간 생산확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으로 4.0%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을 이끌어왔던 저금리 기조와 감세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미국경기는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증가세가 둔화되고, 그동안 호조를 보여왔던 건설경기도 위축될 전망이다.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주택경기의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확대에 이어 그동안 부진했던 소비지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3%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일본경제를 괴롭혀 왔던 디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현금급여의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임시직 등의 고용 확대로 근로자 전체 임금총액은 상반기 중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호조만으로 일본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불황에서 완전히 탈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경제는 지난 2001년부터 침체에 빠져 있으며 구조조정 지연과 내수부진의 여파로 2004년에도 1.8%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과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실업으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 이후 유럽경제는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EU차원에서 경기부양책과 금리인하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4년 5월1일부터 동구 및 지중해 10개국이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역내교역 및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등 이른바 BRICs국가들의 경우 앞으로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개도권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4년에는 경기과열을 진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증가에 대한 우려로 중국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중국경제는 8.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WTO가입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외국인투자의 지속적인 유입, 서부 대개발에 따른 투자 붐이 조성되면서 계속 고성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 새로운 고성장 국가로 부상될 전망이다. 농업부문의 높은 성장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인도 경제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 경제는 2003년 당초 예상보다 높은 7.1%를 성장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6.7%의 건실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도 유가강세 등에 힘입어 당분간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 1위의 원유수출국으로 부상한 러시아는 2003년 7.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4년에도 6%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4. IT비롯 주력업종이 실물 경제 주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등 주력업종이 실물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통신기기 반도체 등 핵심 IT제조업의 생산이 20%이상의 생산증가를 보이면서 실물경기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 생산도 6.1%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가정 통신기기 등 주요 IT제품의 생산 증가는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가전,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등 기존 제품의 국내외 수요급증과 USB 메모리시틱, 자동차등 신규 수요가 등장함에 따라 반도체 생산도 호조를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회복에다 지속적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이상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산 자동차는 그동안 추진해온 품질경쟁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기업의 판매활동 강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내수의 경우 작년 하반기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중국의 긴축 정책 등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하반기 생산증가율은 상반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의 경우 현재의 수주실적과 건조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작년 하반기에 비해 생산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기계의 경우 하반기에는 수출의 지속적인 확대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 등의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실물경제에서 나타나는 또 한가지 특징으로는 주력산업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해외생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가전 컴퓨터 등의 경우 국내생산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에 해외생산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능력 확장은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경기위축의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가전 컴퓨터 섬유 등의 경우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제품 또는 공정은 국내 생산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해외생산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의 전반적인 생산이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산업내 생산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공동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해외생산의 확대는 국내 인건비 상승에 따라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과 현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국과 인도 등 개도권에서의 생산 확대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주력업종의 경우 주로 현지 수요 대응 목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반면 가전, 섬유, 컴퓨터 등은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가전 등의 경우 선진국에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현지시장 공략과 함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생산을 활용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5. 본격적 내수회복은 미지수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비와 투자 위축은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소비의 경우 45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4백만명을 넘어서신 신용불량자문제가 단기간에 크게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용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출범시켰으나 효과는 기대를 밑돌고 있

는 실정으로 국민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려쓴 가계부채는 지난 2002년 2분기를 기점으로 기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빚 상환부담에 따른 소비둔화로 급격한 경기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얼마전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평균 부채규모는 지난 2002년 2분기중에 410조2000억 원에 달해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부채 408조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 이래 최근까지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4-6%정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정부채는 기계가 보유한 예금, 채권, 주식등 금융자산을 감안해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부채규모를 말한다. 따라서 가계부채규모가 적정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 증대뿐 아니라 더 이상 가계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계부실이 커지면 결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여력이 줄고 성장잠재력도 떨어져 잘못하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면서 빚 상환부담도 커졌으며 결국 소비 급감, 신용불량자 양산, 보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의 연착륙이 현안이 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아파트 시장이 냉각돼 가격이 폭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가계대출의 부실화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마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표 2〉 4대그룹 중장기 투자 및 고용 세부계획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기업	기간	총투자(조원)	총투자(조원)	고용창출(만명)
삼성	-2006년	70.0	화성 메모리공장(19.0) 기흥비 메모리 공장(6.0) 2010년까지 LCD부문 20조원이상 투자 삼성SDI(3.2) 삼성코닝정밀(2.1) 정보통신(7.1), 중공업(1) 연구개발(21.0)	6.0
LG	-2010년	57.2	파주LCD단지(향후 10년간 25.0) 구미 PDP공장(2007년까지 1.2) 오창 2차전지, 편광판(2008년까지 1.0) 연구개발(30.0)	5.65
현대차	-2007년	22.0	엔진, 변속기 공장, 차량전지화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첨단소재 개발	매년 0.6
SK	-2007년	20.0	SK 위성DMB(2.0) 물류, 서비스(1.5)	19.0

일부 전문가들은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둔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을 가져와 소비가 감소되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에 빠질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가계부채는 앞으로 상당기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주요한 관건인 기업투자의 경우 지난 5월 25일 노무현대통령과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을 통해 정부는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들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투자활성화의 기틀은 일단 마련됐다. 이어 재계는 6월 18일 '투자전략

보고대회'를 통해 세부투자계획과 고용창출 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모처럼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이 같은 투자계획은 수도권규제를 비롯한 규제완화와 기업도시 설치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당장 하반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뿐 아니라 앞으로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6. 물가, 금리 점진적 상승 가능성

경기회복은 지연되는 반면 앞으로 물가와 금리는 상승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



---

플레이션 선행지표라 할수 있는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의 경우 지난 5월중 13.5%나 폭등해 지난 98년 외환위기라는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2차 오일쇼크 때인 80년대 초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원재료 물가지수는 135.1를 기록해 작년 5월보다 무려 29.5%나 급등해 2000년 3월의 32.5%이후 4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원재료가격이 이처럼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은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데다 유연탄 액화천연가스등 수입원자재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5월중 중간재 물가지수는 107.4를 기록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0.7% 상승했다. 나프타 경유 등 석유제품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요금이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원재료 및 중간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이 이미 인상된 데 이어 택시요금 항공요금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각종 교통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도 소포배달요금을 올리는데 이어 우표가격 인상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분담금 명목으로 담배 값을 올릴 예정이다.

물가불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경우 최근 안정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고유가 시대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어서 물가불안 요인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최근 원유가격은 13년만에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정학적인 위협,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의 수요증가, 투기세력의 가세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최근의 고유가가 과거 오일쇼크 때 처럼 공급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공급이 부족해서 고유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위험프리미엄이 높아져 고유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위험프리미엄은 이라크 사태악화, 중동지역 테러 확산 등에 따라서 원유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가수요 또는 투기 수요가 겹쳐 고유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원유가격이 하향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돼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일부 OPEC 국가들이 원유생산을 늘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는 지난해 3월 배럴당 23.5달러에서 2004년 1월에는 28.9달러, 3월에는 30.9달러에 이어 5월에는 34.6달러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테러사태와 정정불안 등으로 인해 앞으로 유가는 배럴당 35달러를 웃도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금리도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금리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데 이어 유럽 국가들과 중국등이 경기진정을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금리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금리 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7. 주류산업 구조조정 강화해야

주류산업만큼 경기에 민감한 산업도 드물다. 특히 주류산업은 민간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올들어 민간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주류산업도 매출 위축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위스키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주류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접대비 실명제도 립사롱을 비롯한 유흥업소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위스키 소비 감소의 한가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접대비 실명제이후 고급 립사롱을 비롯한 유흥업소 매출은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의 이 같은 변화는 비록 주류소비 감소 위스키와 같은 불요불급한 상품의 수입감소는 물론 투명한 기업경영과 접대문화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난과 더불어 웰빙 바람이 불면서 주류소비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기호도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면서 위스키와 같은 도수가 높은 술 대신에 포도주 과일주등 부드러운 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위스키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표된 이후 칠레산 포도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건강을 생각하는 음주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음주문화의 변화는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좀더 길게 보면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변화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음주문화는 량 위주였다. 그러나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바람이 자리잡아가면서 질 좋은 술을 중심으로 적당히 마시고 즐기는 방향으로 음주문화도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술 소비 감소, 접대실명제와 같은 제도변화. 웰빙 바람에 따라 양보다 질 중심의 음주문화의 변화는 주류산업의 산업의 환경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류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침체의 장기화에 따라 주류소비 증가도 그만큼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류소비가 정체 또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업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의 강화를 통해 질 좋은 주류를 생산함으로써 품질경쟁력을 높혀 나가야 한다. 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주류시장은 위스키를 비롯한 외국술의 시장잠식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보다는 품질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수입 주류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고 국내 주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질경쟁력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나아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주류산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개방화시대에 주류산업도 더이상 국내시장에만 안주해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주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내 주류의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 브랜드 육성이 시급하다. 주류만큼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도 드물다, 그러나 주

---

류에 대한 유명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육성될수 없다는 점에서 주류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대표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完名美節, 不宜獨任. 分些與人, 可以遠害全身. 辱行汚名, 不宜全推.  
引些歸己, 可以韜光養德.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의(節義)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나누어 남에게도 주어야 해(害)를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느니라. 욕된 행위와 더러운 이름은 남에게만 미루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나에게도 돌려야 빛을 감추고 덕을 쌓을 수 있느니라.

- 채근담 -